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
배 포 일	2020. 4. 16. / (총 2매)	담당부서	백신연구과
과 장	정 경 태	전 화	043-719-8150
담 당 자	김 미 영		043-719-8157

## 국립보건연구원,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국내 임상시험 연구 참여한다

- ◇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미국 내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DNA백신의 국내 임상시험 실시
- ◇ 감염병혁신연합(CEPI)에서 국내 임상시험 연구비 약 84억 원 지원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 국립보건연구원(원장 권준욱)은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(IVI)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1·2상 시험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지난 4월 6일부터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이노비오(Inovio) 社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(INO-4800)을 이용하여 국내 임상1·2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,
  - 40명의 건강한 성인에 접종하여 안전성 등을 분석·평가하고 이후 고령자를 포함하여 확대 접종할 계획이다.
- 이번 국내 임상시험 연구는 국제 민간공동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(CEPI)에서 690만 달러(약 84억 원)를 지원하며,
  -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는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절차인 안전성 및 효능 등을 분석·평가할 예정이다.

- 또한 임상시험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고 있다.

□ 이번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후보백신은 DNA백신\* 플랫폼을 이용한 기술로 메르스(MERS, 중동호흡기증후군) 예방 백신에서도 동일 플랫폼이 사용되어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실시한 바 있다.

\* DNA백신: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(항원)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플라스미드 형태의 DNA에 삽입한 백신으로 인체 접종 후 세포내에서 병원체의 단백질이 생산되어 면역반응이 유도됨

- DNA백신은 이미 검증된 안전한 플랫폼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개발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.
-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글로벌임상시험을 통해 후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인체에서 평가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“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통제와 필수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실용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,

- 현재 건립 중인 공공백신개발·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지원을 확대 하겠다”고 밝혔다.